

小肝細胞癌의 畫像診斷法

日本国 岐阜縣 大垣市民病院 放射線技術部

安田銳介* · 市川秀男 · 金森勇雄

근년에 간세포암의 진단은 각종 화상진단법의 진보에 따라, 간경변증을 위시하여 만성 간 질환의 정기적인 경과관찰로서, 종래에 비해서 작은 단계에서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양 직경이 2 cm까지의 소간세포암에서는, 초음파검사나 CT 등의 화상진단장치를 구사하여 간내의 작은 결절성 병변이 검출되어도 그 질적인 진단은 곤란한 것이 많다.

이것은 고전적인 간세포암에서는 일반적으로 풍부한 동맥성의 종양혈관을 감지하고 있으나, 종양 직경이 작은 발암초기의 고분화 단계에 있는 간세포암에서는 아직 동맥성의 종양혈관이 미발달 상태에 있는 까닭이라 하겠다.

최근에는 이와같은 만성 간질환을 배경으로 하는 간내 결절성 병변의 질적진단에 어프로치(approach)하기 위해서 CO₂ microbubble에 의한 US angiography나 고속 CT에 의한 Helical scan이 사용되게 되었다.

US angiography에서는, CO₂ microbubble의 흐름을 US 화상에서 직접 시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종래의 동맥조영이나 DSA에서 알 수 없던 미세한 동맥혈류동태가 주위간의 vascularity의 차로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고속 CT에 의한 Helical scan은 1회의 호흡정지하에 전체 간이 scan되므로 작은 결절성 병변에서도 검출율이 높고, 또한 연속되는 dynamic study가 가능하므로 동맥혈에서 영양되는 소간세포암의 미세한 혈류평가가 검출가능하게 되었다.

금회는 소간세포암의 화상진단법으로서 US angiography와 고속 CT에 의한 Helical scan을 중심으로, 그 수기개요와 전형적인 증례를 구술하고자 한다.